

“은혜 보답하기 위해 수행도량 일굴 짓”

개원 10주년 미안마선원, 남양주 가곡리에 새 터전 마련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미안마 선원(선원장 산디마이) 새로운 보급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미안마 노동자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남양주 불교의 포교도량인 미안마선원은 5월 17일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위치한 새 터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보덕사 주지 정안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 미안마 학생·노동자, 부산 범어사 신도 등 200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인사말, 경과보고, 내빈소개, 축사에 이어 미안마 전통식 공양, 점심공양, 하유 스님의 공 종연 순 등으로 진행된 법회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의 산디마 스님이 시작을 알렸다.

산디마 스님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법당 개원을 여범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한국분들의 도움과 솔선수범하는 미안마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미안마선원



미안마선원은 5월 17일 개원 10주년·법당 이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오른쪽) 선원장 산디마 스님.

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여 스님은 “불교국가에서 온 미안마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개종하거나 인권탄압을 당하는 자 국민들을 보살피기 위해 힘쓰는 산디마 스님의 모습에 감격했다”며 “언어와 인종이 다를지라도 불법을 공부하는 불제자로서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

누고 베풀며 행복한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이어 미안마 전통 국수와 한국 사찰음식으로 준비된 점심공양, 제니스스 합창단과 범어사 합창단의 공연, 미안마 전통 춤 공연 등이 이어졌다.

미안마 선원은 법당 개원에 맞춰 6월 6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산디마 스님이 한국어로 ‘12연기, 아

비담가 강의 명상수행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 산디마 스님은 “송광사 등에서 네 번 안거를 보며 한국 불교를 이해하고 남양주불교만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났다”며 “인생의 참맛은 수행을 통해 아는 것인 만큼 다양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수행의 참 맛을 전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양주시로 이전한 미안마 선원은 1층 기와 건물에 법당과 요사채, 공양간, 해우소가 함께하는 전원주택형이다. 특히 수행 공간이 좁아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었던 전 법당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돼 다방면에서 안정맞춤 수행공간이 될 전망이다. 스님은 “미안마 인들에게는 불자임에 자긍심을 주는 고향과 같은 곳으로, 한국분들에게는 그동안 한국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포교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031)559-5312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지원금·불서 2000여 권 전달

조계종 균종특별교구·사회부, 해군순항훈련 지원



(사진왼쪽) 진승필 법사와 일면 스님

선상에서 수·일요일 종교행사를 열고, 신행 및 생활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와 싱가포르에서는 현지 사찰과 연계해 기항지에서 불교행사도 개최한다.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은 “100일 기항 진행되는 훈련 기간 동안 장병들과 교락을 함께하며, 무사히 귀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승필 법사는 “6-9월 중 적도를 항해하기 때문에 많은 생도들이 지치고 힘들어 한다”며 “장병들의 힘이 되고, 기항 국가에 불교를 알리는 데에도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부(부장 세영)도 5월 22일 해군순항훈련 지원차 진승필 법사에게 의류와 도서1000여 권과 한국불교 소개 영문책자들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균종특별교구는 26-28일 경주 불국사와 교육문화회관에서 유해공군 군승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승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대구 능인중·고 개교70주년

14일 기념행사 개최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조계종 종립 대구 능인중·고등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았다.

‘불타 정신 구현’을 바탕으로 ‘밝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인간상의 확립’을 지향하는 능인학원은 5월 15

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14일 오후 능인중·고등학교 승덕관에서 개교 70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능인학원 이사장 종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학교 발전을 기원했다.

또 능인학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교사 등 장기간 근무한 교사 19명을

표창하고 격려했다.

현재 종광 스님의 지원 아래 중학교 1264명, 고등학교 1492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능인중·고등학교는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1939년 영천 은해사 경내 오산불교학교로 출발해 대구 동화사·김천 직지사·의성 고은사·경주 불국사가 사제출연해 설립했다.

손법선 대구지사장

동련, 어린이지도자연수회 열어

6~7일 유스타운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사)동련이 주최하는 제4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6월 6-7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된다.

전국 600여 스님과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이번 연수회는 ‘나누는 기쁨 하나 되는 여류불교학교’라는 슬로건으로 레크리에이션, 선법 교육 및 다양한 강의로 꾸러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여류불교학교 현장에서 바로 진행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현장성을 강조해 준비했다. 또 참가자들의 활동 분야와 경력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요청에 따라 불교학교 경험 4-5년 이상 된 전문지도자와 초보 지도자들을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

강의는 △찬불가 율동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모다 불 놀이와 촛불발원 등으로 마련됐다. 이상연 기자

화엄회 “수행 통해 본래 마음 밝혀야”

호국 연무사서 수계법회

대전·충청 군불교후원회인 화엄회는 5월 16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주지 보운 김중봉 법사)에서 3000여 훈련병들에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사 환성 스님(공주 영평사 주지)은 장병들에게 “막구름이 바람을 만나 걷히는 것처럼 수행을 통해 본래마음을 밝혀야 한다”며 “억겁 동안 어두운 동굴에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계를 받음은 큰 광명이

자신에게 들어옴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국 연무사 김중봉 법사는 수계식을 마치고 “군포교에 대한 지원과 예산은 이웃종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군불교 후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한국불교의 미래인 젊은 불자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는 화엄회 스님과 예비군승 20명이 함께 수계식을 진행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병불련 6월 14일 외국인근로자 의료봉사

국내·외 의료봉사를 실시하며 신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 이하 병불련)가 6월 14일 강북구근로복지관에서 이주외국인근로자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등 4개 회원사가 있는 병불련은 내과, 동서의

학과, 한방과, 치과 4과에 걸쳐 진료하며 초음파, 심전도,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다.

병불련 류재환 회장은 “의료봉사 시에는 차량 운전과 봉사 준비, 마무리 등을 도와줄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며 “많은 회원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문경 개운사 가족 자비명상 진행

문경 개운사(주지 선구)는 가족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마가 스님(전안 만일사 주지) 지도로 5월 30일 오전 10-12시 점심 문경시에서 진행되는 자비명상 프로그램은 1000여 문경 지역민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운사 관계자는 “가족은 항상 함

께 하면서도 서로가 소원하거나 분쟁이 나 그 소중함을 감각할 때가 많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상처와 오해를 이해하고 어루만져주고 서로가 행복과 축복을 빌어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54)552-4300

이상연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오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고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범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공·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작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부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